

원희룡 장관, “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기틀 마련”

- 8일 사우디 재무부, NCP와 우리 건설기업 간의 협력 주선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(수) 오후 사우디 국립민영화센터 (NCP)* 주최로 개최한 사우디 정부기관과 우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.

* The 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& PPP, 사우디비전 2030 정책에 따라 국영인프라 민영화 및 PPP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무부 산하에 설립한 기관

- 이날 간담회에는 사우디 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들*, 사우디 투자개발형사업 관련 분야 공기업**들이 참여하였으며, 사우디 내 관심사업 등을 공유하였다.

* (기업) 삼성물산, 한미글로벌, 현대건설, 현대Eng., 삼성Eng., GS건설, SK에코플랜트, 두산에너지빌리티, 쌍용건설, DL E&C, 포스코건설, LX 인터내셔널, LX 판토스

** (공기업·유관기관) 인천공항공사, 도로공사, 한전, 가스공사, 수은, 보건산업진흥원, 해건협, KIND

- 또한, 사우디 인프라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무부 장관,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는 주한 사우디 대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강점 분야와 관심사업을 논의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.

- 원 장관은 “작년 11월과 금년 1월, 두 차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여 사우디가 가진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깊이 공감했다”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, “두 나라의 협력이 깊이, 또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정부 간 뿐만 아니라,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리 기업 참석자 모두를 사우디 정부기관 앞에서 직접 소개하면서 “한 기업, 한 기업이 모두 높은 기술력, 책임감과 신뢰를 가진 최고의 기업들”이라고 극찬하여 우리 기업들의 홍보 활동과 사우디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힘을 실었다.

2023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